

11월 3일

레위기 1장: 이번 장은 번제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물로는 형편에 따라 숫소, 수양, 혹은 가난한 자의 경우 수컷 새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로, 주로 고의적인 죄가 아닌 죄를 속하거나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오늘의 묵상: 살아 있는 영적 예배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레위기는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분과 화목하며, 그분의 거룩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 제도는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번제물로는 소, 양, 염소와 같은 가축이나 비둘기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제단 위에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제사였습니다. 번제는 감사, 참회, 서원, 그리고 자기 헌신을 표현할 때 드려졌습니다.

번제의 특징은 제물 전체를 불태워 하나님께 드린다는 점입니다.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행위는 죄가 동물에게 전가됨을 상징하며, 제물이 대신 죽는 것은 죄값이 생명으로 치러진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번제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는 예배를 상징하며, “향기로운 냄새”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온전히 태워 드린다는 것은 온전한 헌신과 행복을 의미합니다.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제물을 죽이는 과정을 통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엄중히 다루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번제는 죄인된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용서하시고 성결하게 하시며 헌신케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자, 죄 사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십자가 희생을 예표합니다(히 10:5-10).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참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곳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를 기억하며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로마서 12:1)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번제의 희생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했듯이, 우리도 속죄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이러한 헌신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묵상 질문: 예배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곧 생명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물이 온전히 태워져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듯, 예배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참된 만족과 행복, 안식과 위로, 능력과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만일 예배를 통해 은혜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하면 은혜가 됩니다!

1. 레위기를 지은 저자는 누구입니까? (1)
2. 번제로 사용된 동물들은? (2, 5, 10, 14)
3. 번제는 자원제, 의무제 중 어떤 제사였습니까? (3)
4. (참, 거짓)-번제는 제단 위에서 제물을 완전히 불사르는 유일한 제사였기에 종종 “온번제 (화제, the whole burnt offering)”라고 칭하여졌다. (2-17)
5. (참, 거짓)-동물의 머리위에 안수하여 제물을 드리는 자는 그 희생물과 동일시 되었으며 그 희생물은 그를 대속하는 것이 되었다. (4; 민수기 8: 9-10)
6. **제사는 예배입니다:** 레위기는 지루할 정도로 상세한 설명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시대와는 동떨어진 것이기에 이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들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용서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유익한 책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읽어가면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의지하며 예배하십니까? 또한 예배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7. **거룩한 하나님과의 동거:** 레위기는 출애굽기가 끝나는 자리, 곧 시내산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성막이 완성되었고(출 35-40장),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가르치시려 합니다. 레위기는 새로 구속 받은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지침서입니다. 그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기며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분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했고, 여호와와 동행하는 길은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8. **제사의 목적:** 구약 시대에 제사는 여호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동물 제사는 두 가지 목적을 지녔습니다. (1) 희생된 동물은 죄인을 대신하여 죄의 값을 치르는 상징적 행위였고, (2) 그 죽음은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대신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대속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사는 백성으로 하여금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제사의 완성과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자는 죄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9.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구약의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자, 그분의 법에 대한 충성의 표현이었습니다. 흠 없는 예물을 드리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의 마음이 어찌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깨끗하고 온전한 제물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그분이 장차 단번에 죄를 속하시기 위해 자신을 드릴 것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제단 위에서 예물이 불에 완전히 태워지는 것은, 드리는 자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겠다는 결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제물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외적인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내적인 회개, 곧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 단번에 우리를 위해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그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시 51:17)